

유효적 소명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는가(2)?

## 인간의 완전 타락

### 1. 예수님의 인간관 :

칼빈 주의는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죽어,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어, 하나님께 인간이 먼저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 활동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타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통 신학이 말하는 의지의 전적 무능은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려 아무 선을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로히 도덕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의지는 영적 선을 선택하거나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지의 전적 무능(Total Inability)입니다.

완전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필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 은혜로 구원되었으니 우리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할 주제입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들도 성경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가지 윤리적 명령들이 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등등. 인간이 완전타락하여 선을 행할 수 없다면 이런 명령들은 쓸데없는 소리가 되고 만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다. 이것은 인간편에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완전 타락하였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

또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하셨다. 인간의 의지가 완전 타락하였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효적 소명에 의해 구원받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이런 질문은 참으로 기독교인이면 하여야 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질문할 것과 나중에 질문 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유능한 교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모르게 되는 것은 이 질문을 하는 순서가 엉망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의 질문을 전제(Presupposition)라고 합니다.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전제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완전 타락하였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은 타락하여 완전한 육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완전타락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느날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성경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모토로 삼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 : 2 ---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3 : 3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3 : 5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 :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할 말이 바로 3:6 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 :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인간의 완전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은 완전 타락하여 그 전체가 육이라는 것이요, 두번째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는 영적이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하여 그 전체가 육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8 :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에 있다”

무슨 행동을 하던 안하던 벌써 육의 상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두번째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는 영적이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8 :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 :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 :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 하기에 앞서, 근원적인 영적 질병을 중생으로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불철주야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어도 맨나중에는 공수래공수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교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논리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완전 타락을 이것처럼 정확히 말해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3 :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관입니다.

어거스틴을 이어받은 정통 신학은 중생에 있어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중생을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의한 새생명의 탄생으로 봅니다. 이것을 Divine Monergism 이라고 합니다(이것에 대해서는 저의 모든 과정에서 공부했으므로 다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원하는 분은 구원론 첫째주와 둘째주를 공부바랍니다).

타락을 믿지 안았던 어거스틴의 논적 펠라기우스는 중생을 인간이 도덕적 책임으로 응답(Moral Responsibility)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sup>1</sup> [Link to Synergism](#)).

---

<sup>1</sup> . Topic; Synergism in Elwell's EBD

Half-Pelagius 주의자들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중생에 있어서, 성령은 말하고는 있는데, 성령님은 도덕적 감화만을 하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생은 도덕적 갱신이 됩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말하길, "**Free will is the power of applying oneself to grace(자유의지가 그 자신을 은혜에 적용하는 능력이다)**".<sup>2</sup>

중생이 성령의 주도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유 의지의 주도권을 말합니다..그들은 중생이 새생명을 탄생케 하는 성령님의 초자연적 역사라는 것을 부인하고, 단지 도덕적 감화라고 합니다.

중생이 자유 의지가 주도하는 성령의 도덕적 감화라고 하니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통신학은 중생을 성령의 주도권아래 이루어지는 새생명의 탄생으로, 도덕적 변화는 성화에 포함시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바로 이 부분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 주의에 의한 불가항력적 은혜는, 성령의 도덕적 감화 이전에 새생명의 발생(generation)과 출생(bearing)을 말합니다. 새생명의 발생은 원죄로 죽은 사람의 영을 성령님이 살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새생명의 출생은 새생명이 발생한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사람 앞에 간증이나 세례등을 통하여 공적으로 표명하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새생명의 발생은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 주는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인 역사요, 새생명의 출생은 사람의 자유 의지로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새생명의 발생은 인간의 잠재 의식에서 생기는 일이라 사람편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생깁니다. 지나 놓고 나서야 ‘그 때 그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하며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생명의 출생은 자유의지적 활동이 됩니다. 새생명의 발생에서 출생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생기고 나중에야 이해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경험하게 됩니다.

중생이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인 역사라는 좋은 예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 루디아와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16 :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사도행전 16 : 14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모인 여자들이 여럿이 잇었지만 유독 루디아의 마음만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바울의 말을 청중케 하시었다는 말입니다.

<sup>2</sup>. Topics: Synergism from Elwell's EBD

사도행전 9 :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행전 9 :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9 : 3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 :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의 선제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칼빈 주의와 아르미니우스 주의가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이해하세요?

### 1.1 완전 타락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

사람의 내면이 완전타락하여 욕이 되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더러운 것만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간관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완전한 타락, 욕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 :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 :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마태복음 15 :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내면이 완전타락하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욕적인 것만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간관입니다.

이 구절을 대하여 자유 주의자들은,이 말씀은 인간 내면의 악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 선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성경말씀에 의한 윤리적  
연합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의 타락한 부분이 도덕적 감화를 통해 점차

변화함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를 말합니다. 성령의 INITIATIVE 를 부인하고 인간의 의지의 자발성만을 강조하니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칼빈 주의에 있어서는 성화는 성령의 내주로 인한 생명의 연합후에 따라오는 도덕적(윤리적) 연합을 함께 설명합니다. 도덕적(윤리적 연합)은 생명의 연합으로 다가오는 필연적 결과로 봅니다.

여기서 칼빈 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통신학은 사람이 타고난 덕성으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혜로 남겨 두신 선한 성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품이라 할지라도 중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러지지 않으면 어떤때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좋은 예가 중생하기 전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 보십시오.

로마서 10 : 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로마서 10 :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 :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좋은 일도 했고, 선한 일도 했고 다 했지만 ,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이것이 바로 완전 타락한 중생치 못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입니다.

성화를 윤리적 연합으로만 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종교는 다 같다하면서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 마찬가지로 어는 것이든 하나만 믿으면 구원된다 주장하게 되고, 목사가 절간에 가서 불탄을 축하하고, 스님이 교회에 와서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성화는 영과 육을 구별하지 않는 육의 자유의지를 말하기 때문에 인본 주의 내지는 합리 주의로 흘러 그 타락이 운명지워져 있습니다.

저는 자유 주의 신학이 다스리는 교회의 성도의 믿음을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역에 속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 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사람은 완전타락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